



# **F.B.I EXECUTIVE REPORT**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## Contents July 31, 2013

### Biweekly Report

- 2** Google, Microsoft Earn Bronx Cheer From Wall Street as Stocks Slide  
최진영, from TIME
- 5** Detroit Slides from Industrial Might to Bankruptcy  
이은경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8** China Targets Big Pharma  
이상훈, from The World Street Journal
- 12** Where Have All the Burglars Gone?  
김영은, from The Economist
- 16** 食药监总局：纯牛奶不得用奶粉冲兑  
장혜진, from 新京报

### Special Report

- 19** Indonesia's Palm Oil Industry Rife with Human-Rights Abuses  
김윤희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## Google, Microsoft Earn Bronx Cheer From Wall Street as Stocks Slide

\* 기사출처: [TIME \(2013.07.19\)](#)

\* 요약자: 최진영(skyss92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2분기 실적, 구글, MS

“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상반된 전망”

### □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시장의 기대보다 크게 저조한 2분기 실적을 기록함

- 세계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동시에 부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
  - 구글의 2분기 순익은 97억 1000만 달러이며 주당 순익은 9.56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주당 순익 10.80달러에 미치지 못함
  - MS의 해당 기간 순익은 199억 달러, 주당 순익은 66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
-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주가 모두 시간 외 거래에서 4~5%가량(약 300억 달러) 하락함

### □ 구글은 검색광고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침

- 구글의 2분기 광고 유료 클릭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%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4% 상승에 그침
-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구글은 완전한 성숙기에 접어든 검색광고 시장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제에 당면

- PC 대신 모바일을 통해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모바일은 PC에 비해 40%까지 광고 효과가 떨어짐

#### □ MS의 경우 PC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끼침

- MS는 윈도우부터 엔터테인먼트 부문까지 5개 사업부 모두 부진
- 특히 태블릿 기기 개발에 9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존의 주력 사업인 데스크톱 PC에서 포스트 PC 시대로의 전환을 꾀했지만, 큰 성과를 얻지 못함

#### □ 구글은 전 분기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

- 매일 150 만개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앱의 수가 500억 개에 달함
- 구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새로운 광고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유
  -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 중심으로의 전환이 순조롭다고 평가됨

#### □ 반면, PC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MS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 됨

- 일부 전문가들은 MS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이 강세인 현 시장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
-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해 태블릿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시장으로부터 크게 평가절하 받는 등 미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

□ 구글과 MS 모두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

- 구글은 CPC(Cost Per Click)가 6% 떨어지면서 모바일로의 전환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  - 소비자들은 점차 모바일 시장으로 이전되는데, 스마트폰 광고 단가가 여전히 PC의 절반 수준인 점이 큰 문제
- MS는 새롭게 진출한 분야인 태블릿 PC의 판매 부진이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, 애플 등 경쟁사들을 상대로 성공할만한 제품 개발이 필요 **FBI**

## **Detroit Slides from Industrial Might to Bankruptcy**

\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7.19\)](#)

\* 요약자: 이은경 (lee0705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디트로이트, 파산 신청

### **“미국 최대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파산 신청과 이를 둘러싼 논란”**

#### **□ 미국 최대의 공업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함**

- 디트로이트시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,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고향이자, 미국 공업의 상징이었음
-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, 디트로이트시는 은퇴 경찰관과 현직 도시 근로자들에게 채권 형태로 차입한 수십억 달러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음
- 지난 18일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,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채무 규모로 추산됨
  - 관계자는 디트로이트의 빚이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

#### **□ 디트로이트시는 거대 규모의 자동차 회사들과 시 주민들의 이주로 20세기 중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임**

- 1950년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, 이에 따라 인구수 역시 급감함
  - 1950년에 최대 185만 명에 달했던 디트로이트시의 인구는 현재 약 70만 명으로 감소

- 2011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, 디트로이트시 주민의 36% 이상이 가난한 상태
  - 주 전체의 가구 평균 수입은 4만 9,000달러에 달하지만, 디트로이트의 수입은 2만 8,000달러가 채 안 됨

#### □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디트로이트시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갚을 것이라고 공표함

- 디트로이트시의 전체 부채 중 수도세와 하수세는 약 54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
- 공공 사업과 관련된 채권은 상황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


#### □ 그러나 디트로이트시는 연금에 대한 지급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

- 일시 차입된 연금 채무는 35억 달러에 이룸
  - 이는 가장 큰 무담보 채권자인 통상적인 퇴직 연금 제도(약 20억 4,000만 달러)와 경찰과 소방관의 퇴직 연금(14억 4,000만 달러)를 합한 규모
- 디트로이트시는 총 110억 달러를 빚진 연금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20억 달러만 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들의 혜택을 줄일 것을 공표함
  - 20억 달러에는 무담보 공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과 건강관리 및 전, 현직 시 직원들에게 빚진 여러 채무가 해당함

#### □ 연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시의 주장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황에서, 연금 수혜자들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

- 연방 파산법 9조에 의해, 시는 법원에 채무를 없애는 조정 계획을 승인하도록 설득하여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

할 수 있음

- 이에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들이 미시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사는 주 정부에게 파산보호신청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함
  - 담당 판사는 연금 제도의 재정적 혜택을 저해하거나 은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보게 하는 조치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함
- 그러나 디트로이트시는 파산보호신청이 현 상황에서 적합한 조치라고 주장하며, 법정에 오는 8월 19일을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신청의 마감기한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함 



## China Targets Big Pharma

\* 기사출처: [The World Street Journal \(2013.07.16\)](#)

\* 요약자: 이상훈 (hooney704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헬스케어, 부패, 뇌물

“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부패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”



□ 최근 중국 공공안전국의 경제범죄조사부는 영국계 다국적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(GSK)의 임원진을 중국사업부 고위급 임원

## **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**

- GSK는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약품을 팔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하여 공무원, 병원, 그리고 의사들에게 뇌물을 줌
- GSK의 고위급 임원들이 세우는 판매 및 마케팅에서의 핵심 전략이 상업 뇌물수수를 공모하고 장려하는 것일 정도로 부패가 만연한 상황

## **□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**

-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코에 따르면 중국의 헬스케어 지출은 2020년경에 1조 달러로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
-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하면 중국 내 약품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8.2% 증가한 820억 달러를 돌파

## **□ 또한 중국은 GSK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**

-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출이 부진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음
  - 지난해 약품 및 백신 매출은 유럽서 50억, 미국에서 70억 파운드로, 각각 7%, 2% 감소한 수치
-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 신흥시장에 의존하는 상황
  - 중국시장에서 약품 및 백신 매출은 7억 5,900만 파운드로 17% 증가
  - 현재 6개 공장 및 연구소에 5,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

## **□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헬스케어 분야가 구조적으로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**

-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업계에 만연한 부패라고 진단
-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를 중개기관으로 이용
- 의사는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과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음

#### □ 중국 정부는 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서구의 뇌물 반대자들은 그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전망


-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기업 뇌물수수를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 영향을 끼친 조사는 없었음
  - 2010년 호주인 다국적 광산업체 간부에게 뇌물수수와 중국의 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만이 유일한 선례
-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약 및 의료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

#### □ 한편 GSK는 뇌물 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중개기관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

- 조사에서 밝혀진 여행사들의 이용을 중단하고 그 동안의 여행사들과 자금거래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
- 전 직원에게 중국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강하게 당부함
- GSK는 2004년과 2010년 사이 승인 받지 않은 약 처방을 받고자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중국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체

조사를 벌이고 있음

□ 미국 당국 역시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내 부패활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

- 2010년 이래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GSK와 같은 제약회사들이 중국을 포함 10여개 나라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조사
- 해외부패방지법(FCPA)하에서 의사와 국영병원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

## Where Have All the Burglars Gone?

\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7.20\)](#)

\* 요약자: 김영은 (kye9242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선진국, 범죄율 감소

“경제 침체 속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의 범죄율의 원인”



□ 높은 실업률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선진국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음

-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람과 재산을 노린 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고 있음
  - 미국은 1991년부터, 영국은 1995년도부터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함
  - 프랑스에서는 재산범죄가 2001년까지 증가했지만, 그 이후로 3분의 1로 줄어듦

□ 범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의 감소가 제시됨

-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어난 베이비붐은 16세부터 24세까지 인구를 급증시켰는데, 대부분의 범죄가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 의해 범해졌음
-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했고, 이는 범죄율 감소로도 이어짐
- 그러나 특정 연령대의 인구 감소만으로 범죄율 감소를 설명할 수는 없음

□ 많은 범죄자를 투옥시켰기 때문에 범죄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존재

- 영국에서는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교도소 수감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고, 호주와 미국에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
- 하지만 캐나다, 네덜란드,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수감자 수를 줄여나가는 와중에도 범죄율이 급증하지 않음

□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범죄 수사 기술의 발전도 범죄가 감소한 원인

- 1990년대에 미국의 대도시 중 일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“범죄분석예측시스템” 정책을 채택하고, 경찰 인력을 크게 증대
  - 이후 뉴욕 로어 맨해튼의 Canal Street 주변 지역에 살인율은 1990년에 주민 10만 명당 29%에서 2009년 약 1.5%로 떨어짐
- DNA 검사의 도입,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감시카메라 같은 기술의 발전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임

#### □ 높아진 교육수준과 약물 사용의 감소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침

-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일탈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
  - 유럽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세대는 10년 전 세대보다 불법 약물이나 술을 마시려는 시도를 덜하는 성향을 보임
- 미국에서는 1990년대의 크랙, 코카인 등의 마약 사용이 감소하면서 범죄가 감소

#### □ 도난방지 시스템, 사설 경비 산업의 발달 역시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꼽힘


-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범죄를 대비해 도난 경보기, 창문 자물쇠와 대여금고 등을 설치함
  - 1995년과 2011년 사이에 영국 가정집의 도난경보기 설치율은 29%로 증가
- 상점들 역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느 때보다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여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함
  - 유럽에서 사설 경비원의 수는 10년 전보다 90% 증가하였으며, 이는 경찰관 수를 넘는 수치임

#### □ 모든 부분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, 강력 범죄들이 감소하는 추세

- 성범죄를 비롯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금융사기, 전신송금사기, 개인정보유출 등의 범죄는 여전히 급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

- 하지만 이전과 달리 선진국에서의 조직 범죄는 덜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줄고 있음

□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불황 여부에 상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

- 범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적고 늙어가고 있음
-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며, 세계경제가 회복할 때에도 범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 
예상됨 



## 食药监总局：纯牛奶不得用奶粉冲兑

\* 기사출처: [新京报 \(2013.5.10\)](#)

\* 요약자: 장혜진 (skylinda89@hanmail.net)

\* 키워드: **가공우유, 분유**

### **“중국 내 분유를 이용한 가공우유를 둘러싼 논란”**

□ 중국의 한 유업 전문가는 중국에서 생산된 우유의 60%가 생우유가 아닌 가공우유라고 밝혔으며, 이 소식은 유제품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킴

-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분유 수입은 3만에서 9만톤 사이를 웃돌았으며 작년에는 수입량이 60만톤에 달함
- 몇 년 사이에 수입량은 약 10배 증가했으며 수입된 분유는 대부분 우유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유통됨
- 많은 유업 관계자들은 상온에서 보관되는 우유 대부분에 분유 성분이 들어갔다고 주장함

□ 분유를 가공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원인은 원유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함

-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해외의 저렴한 분유를 구매하며, 이 과정에서 값싸고 질이 낮은 분유도 같이 들어오게 됨
-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이 높지만은 않음
  - 2009년 이전에 수입되는 분유에는 3만 위안의 자본금이 들었지만, 국내의 원유에 투입되는 자본금은 이를 초과하지 않음

□ 중국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'식품안전표준기준'에서 생우유의 경우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그 외의 다른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함


-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가공 처리가 들어간 경우 '가공우유'라고 표시해야 함
-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말로 생산한 우유의 경우 겉표지에 '분말우유'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, 생우유의 경우 분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
  - 원료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

□ 반면, 전문가들은 60%의 우유가 분유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

- 분유가 불법적으로 우유 생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, 그렇게 생산된 우유는 중국 내 총 우유생산량 2,000만톤 중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함
- 산업 관계자에 의하면, 유업 내에서 분유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생산 방식은 존재하지만, 60%의 우유가 분말을 사용해서 생산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라 주장함
  - 작년에 수입된 분유의 60%가 신생아를 위한 분유였으며, 나머지 약 20만 톤이 유제품생산, 조절가공상품과 같은 가공식품에 사용되었다고 밝힘

□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부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

-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"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볼 것이며, 정확히 한 수량과 유통 과정을 조사한 후, 이는 정부에서

발표해야 할 것"이라고 밝힘 

## Indonesia's Palm Oil Industry Rife with Human-Rights Abuses

\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7.18\)](#)

\* 요약자: 김윤호 (yhhkim3937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야자유, KLK, 중국

“거대 야자유 생산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 유린의 실태와 전망”



□ **전 세계적으로, 특히 중국에서 야자유 소비량이 대폭 증가함**

- 야자유와 그 첨가물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의 상품에서 사용되고 있음
- 특히 야자유를 식용유나 국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아시아의 수요가 야자유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
- 중국은 세계 최고의 식물성 기름 소비국이며, 야자유는 여러 식물성 기름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임

□ **한편 야자수 재배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이며, 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알려짐**

-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야자유 산업은 유럽과 미국 환경 운동가들의 조사대상이 됨
- 조사 결과 근로자들 상당수가 어린이들이었으며, 그들은 위협, 학대받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□ **특히 KLK라는 거대 야자유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횡포가 자행됨**

- KLK(Kuala Lumpur Kepong)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자유 공급 업체 중 하나
-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속여 노예 계약을 체결했으며, 산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조치마저 거부함
- 근로자들이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며, 만약 이들이 잡힐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인권 유린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짐

□ **RAN(열대 우림 행동네트워크)에서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자, KLK는 뒤늦게 조치를 취함**

- RAN에서 이 같은 KLK의 행태들에 대해 보고하자, 뒤늦게 KLK의 관리인이 RAN 조직에 접근
- 이어 그들은 기존에 벌어졌던 학대의 실상에 대해 일찍이 잘 알지 못했다면서 사죄의 뜻을 밝힘
- 또한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체와 체납된 임금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함

□ **그럼에도 KLK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는 큰 변화가 없음**

- 고발 당시에 KLK에 소속되었던 당시 관리인들이 여전히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됨
- Bloomberg Businessweek가 올 봄에 농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, 어린이들의 노동력 착취와 임금을 속이는 행위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음이 확인됨

□ **여러 지적에도 KLK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함**

- KLK는 결코 노동자들을 규제하고 학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함
- 그러나 그들은 야자수 재배장에서 벌어졌던 이전의 학대 행위에 대해 지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, 그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중

□ **또한, 야자유 생산 과정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**

- 열악한 생산 환경이 이미 고질화된 상황
- RSPO가 생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비양심적인 생산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
- 소비자들은 생산 과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생산자에게 아무런 압박을 가하지 않음

#### RSPO (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)


지속 가능한 야자유 상품들의 성장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4 년에 만들어진 비영리, 시장 주도의 단체이다. 2012 년 현재 50 개국에 걸쳐 1000 여명의 일원이 가입되어 있다. 야자유 생산자부터 유통업자, 야자유 제품 제조자, 투자자, 그리고 환경보호 NGO 등이 그들의 회원이다. RSPO 의 상표는 제품의 합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보증한다.

출처: 위키피디아, RSPO 홈페이지

#### □ 한편 기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몇 가지 담론이 제기됨

- 야자유 생산업자들은 생산되는 기름이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환경적으로도 적합하고, 관리와 운영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상품인지에 대해 제3자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의함
- 일부 영리 목적의 RSPO 일원들은 2015년까지 오직 지속 가능한 야자유만을 판매하기로 약속함

#### □ 또한,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부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면서, 향후 이 문제의 귀추가 주목됨

- 중국인의 44%가 환경 친화 제품을 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답함
- 중국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 발전이 기대됨 

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윤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, 박인철 (star11kers@hanyang.ac.kr)